

명예안전감독관 인원 제한 폐지...산업계 ‘현장 혼란’

경총, 노동부에 개선 건의...사업주 압박 수단 우려 주장

기업 규모별 정원제 도입 촉구...무분별 추천·위촉 방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산업계에서 무분별한 위촉에 따른 노사 갈등과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고용노동부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고 산업재해 예방계

획 수립과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등에 참여하는 제도다.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그동안 명예감독관은 사업장별 1명 위촉을 원칙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기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위촉이 의무화됐고, 시행령에 있던 사업주 의견 확인 절차와 사업장별 적정 인원 기준도

삭제됐다.

경총은 제도 개편의 취지와 달리 노조가 교섭력을 높이거나 사업주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예감독관을 대규모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조업 A사는 수백명, B사는 수만명에 이르는 근로자 전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총은 전했다.

명예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장 감독에 참여해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거나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경총은 명예감독관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작업중지 요청이 빈번해져 생산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다수의 주관적인 의견이 제시되면서 정부의 사업장 감독도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무관리 과정에서의 갈등 가능성도 제기했다.

명예감독관의 임무 수행을 이유로 한 활동 시간 인정과 전한 배치, 징계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기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역할과 책임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행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추천서 접수부터 위촉장과 증표 발급, 교육, 해촉 심사까지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명예감독관 수가 급증하면 교육비와 활동 지원비 부담뿐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노사 갈등과 관련한 민원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경총은 기업 규모에 따라 적정 명예감독관 정원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적정 인원으로는 근로자 1000명 미만 사업장 1명, 1000명 이상 1만명 미만 사업장 3명 이내, 1만명 이상 사업장 5명 이내를 제시했다.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때 사업주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추천 사유서와 업무수행계획서, 안전보건 업무 경력 등을 제출하도록 추천 절차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추천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경총 관계자는 “신속한 법 개정이 어렵다면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서라도 기업 규모별 적정 인원을 제시해 무분별한 추천과 위촉을 방지해야 한다”며 “추천 서류와 심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SKT, 러너 공략...가민·샤즈 라인업 강화

가민 워치·샤즈 이어폰 도입

요금제 연계 할부금 할인 제공

SK텔레콤 러닝을 즐기는 고객을 겨냥해 스마트기기 라인업을 확대하고 러닝 행사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혜택 강화에 나선다.

SKT는 러너 고객들이 선호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새롭게 도입하고 다양한 러닝 경험을 제공하는 ‘런메이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글로벌 GPS 스마트기기 브랜드 가민(Garmin)과 오픈형 이어폰 브랜드 샤즈(Shokz)의 제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가민의 러닝 GPS 스마트워치 ‘포러너 70’과 ‘포러너 265’를 출시하며, 이 가운데 ‘포러너 70’은 SKT가 가민과 독점 제휴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판매하는 제품이다.

입문형 모델인 포러너 70은 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이용자를, 포러너 265는 전문적인 러닝 데이터와 훈련 기능을 원하는 이용자를 겨냥했다.

이와 함께 골전도 이어폰 ‘오픈런 프로 2’도 판매한다.

오픈런 프로2는 골전도 이어폰의 저음 성능을 개선해 러너들 사이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제품이다.

가민 워치와 샤즈 이어폰은 ‘베스트 Max’, ‘베스트 Pro’, ‘베스트 109’, ‘다이



SK텔레콤 러닝을 즐기는 고객을 겨냥해 스마트기기 라인업을 확대하고 러닝 행사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혜택 강화에 나선다.

렉트5G 76’ 요금제 가입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 할부금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베스트 Max’ 요금제 이용자는 월 최대 2만4천원의 할부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T는 고객 참여형 러닝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9월 19일 경주에서 열리는 ‘2026 무한도전 Run in 경주’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며, SKT에서 갤럭시 Z 폴

드8 울트라, 갤럭시 Z 폴드8, 갤럭시 Z 플립8을 구매한 고객에게 참가권 추첨 응모 기회를 제공한다. 스마트기기 할부금 할인 대상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는 추가 응모 기회도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SKT는 추첨을 통해 총 2천 명(1천 명 당첨자에게 2매씩)의 참가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가맹점주 10% 뭉치면 단체협상권 가진다

공정위, 개정안 입법예고...미협의를 땀 시정명령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점주 10%나 1000명 이상 가입한 점주 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과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단체(점주 단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담은 개정 가

맹사업법은 점주 단체의 공정위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본부의 협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의를 임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공정위에 등록이 가능한 점주 단체는 동일한 영업 표지(상호·상표·간판 등)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가운데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가입한 곳이다.

가입자 수는 최소 30명이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 수가 30개 미만인 가맹본부에선 점주 단체가 등록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이 30개 미만인 가맹본부는 전체의

12.2%”라며 “사각지대 우려는 적다”고 설명했다.

점주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때 등록 신청서를, 등록 사항이 변경될 경우 연 항묵별로 규정된 기한 내에 변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맹점주 명의도용, 위·변조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아울러 등록 점주 단체의 협의 절차도 규정했다.

등록 점주 단체는 서면 등을 통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회의록 작성·협의 결과 통보 의무가 생긴다.

협의 참석자는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 등록 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당사자의 직범한 대리인도 포함된다. 연합뉴스

중진공 호남연수원, AI·탄소중립 체험캠프

10일까지 전남광주·전북 4~6학년 대상 40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이 전남광주·전북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을 연계한 체험형 교육을 진행한다.

중진공 호남연수원은 오는 12~13일

‘AI로 그린(Green) 탄소중립 체험캠프’를 열고 1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광주지역 특화산업인 AI와 미래 핵심 가치인 탄소중립에 대한 학

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전남광주와 전북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이다.

참가자들은 AI와 사물인터넷(IoT)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관련 도구를 활용한 블록코딩 실습에 참여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명품을 기획하고 이미지로 제작하는 공모전도 진행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

KH MEDICHECK

건강검진

매일 체크✓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60415-중-211304호

